

原子力黃金時代의 蘇生

本稿는 林瑤圭(韓國原子力安全技術院 副院長)박사가 日本Isotope News 1992年 2月号 卷頭欄에 掲載하였던것을 우리말로 翻譯한 것임.

韓國에는 原子力研究所가 1959년에 創設되고, 1962년에 研究用原子爐가 稼動하여, 비로소 放射性同位元素(RI)를 生産·利用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放射線醫學, 農學研究所가 잇달아 設立되어 原子力에 대한 基礎와 應用研究가 1960년대말까지 活潑히 持續되었다. 이 때가 第一期原子力黃金時代였다. 原子力은 最尖端科學이며 魔術師와 같은 存在라고 國民들이 알고 있었고, 이 分野의 從事者들은 큰 矜持를 갖고 研究에 從事한 時代였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 GNP의 成長과 急速한 工業化로 原子力發電事業이 시작되어, 이 巨大한 鎔鑛爐의 出現으로 RI利用分野가 1960년대에 지켜 온 榮光의 자리를 原電分野가 물려받게 되었다. 겨우, 20년사이에 9基의 原電이 運轉을 開始하여, 電力需要의 50%를 擔當하는 第二期原子力黃金時代로 되었다.

TMI와 체르노빌 兩原電 大事故發生의 突風에도, 國民이 收容한 原子力에 대한 不安은 一過性에 그쳤다.

198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 政治의 民主化라는 물결에 同乘하여 나타난 反核바람은, 原子力安全에 대한 國民의 信賴感을 잃게 하고, 메스컴도 贊核과는 距離를 두기 시작하였다. 原子力이라는 말을 核으로 바꾸고, 原電은 트립(不時停止)한다라는 社說까지 登場

하게 된다. 發電所附近에서 잡힌 고기가 조금이라도 異常하면 放射線탓이며, 無腦兇와 奇形動物이 생기면 原電과 結付시켰다.

NIMBY(not in my back yard : 總論贊成, 各論反對)現象은 도를 지나쳐 既存 原電敷地內에서의 追加建設에도 反對하게 되고 2년전에는 放射性廢棄物處分場의 敷地選定過程에서 住民의 反對騷亂에 대한 責任으로 高官들이 經질되어, 아직까지 處分場敷地를 選定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겨우, 수년사이에 原子力の 黃金時代에서 困惑時代로 바뀐 것이다.

그렇다면, 原子力은 惡魔이며, 放射線은 恐怖의 對象인가? 다른 一般産業과 비하면 原子力産業의 安全性은 우수하다는 것이 立証되어 있지 않는가? 오늘날의 原子力受難時代를 초래한 것을, 科學의 合理性을 고려하지 않는 社會에 起因한다고 速斷해서는 안될 것이다. 放射線을 다루는 올바른 知識의 普及 없이는 原子力安全에 대한 國民의 理解는 얻기 어려우며, 또 올바른 放射線利用專門家의 養成없이 原子力安全問題를 解決할 수 없는 것이다.

原子力の 黃金時代를 再現하기 위해서는 原子力の 모든 分野에서 從事하는 우리들 自身의 責任이 크다는 것을 痛感하여, 奮闘努力해야 할 것이다.